

입학식날에만 학교에 가서
지구를 돌고도는
무서운 병때문에
집에서 지냈어야 했던 영이

학교 생각, 동무 생각하며
방안에서 책가방 메고
오늘도 거울앞에 다시 서보는데
아야, 정말이지 컴퓨터화면에
치마저고리 입은 선생님 나오셨네

-1 학년 생동무들, 안녕하세요
오늘부터 국어공부를 함께 하자요
좋아라 교과서를 펼쳐놓고
화면앞에 똑바로 앉은 영이
선생님을 따라서
우리 말을 배워요...

- 《입학식》
이랬더니 곁에 있던
두살난 철이가
누나를 본따서
- 《이팍찌》
같이 보시던 아빠는 하하하

선생님 하시는대로 영이는
- 《선생님》
곧이어 철이는
- 《던 떼니》
영이도 후후후

엄마가 물으셔요

- 《네 이름이 뭐니?》

- 《난 김영이야》

- 《난 더어리야》

호호호

컴퓨터가 교실인가요

우리 집이 학교인가요

우리 말이 늘어가는

영이네 집에선

힘든 나날에도

웃음소리 그칠줄 모른다나요